



‘농업 만족’ 12.6%, 4년새 최저 ‘자녀에 농업 물려주겠다’ 3.5% 불과

농경연, 2000 농업인 의식구조 조사 결과 나타나 5년후 농촌 생활수준 낙후 65.1%, 전망 불투명

우리나라 농업인 가운데 현재 농사에 만족하는 사람은 10명중 한명에 불과하고, 농업인의 대다수인 90.8%가 5년후 농촌생활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이거나 더욱 나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들에게 농업을 대물림 하겠다는 농업인은 3.5%에 그쳐 농업인들 사이에 농업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12월 농업인 1천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업인 의식구조 변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 결과에 따르면 농업에 종사하면서 얼마나 만족하는냐는 질의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농업인은 10%로, 이는 98년 29.1%, 99년 21.4% 등에 비해 낮은 수치로 최근 4년 사이 최저치를 기록했다.

농업종사와 다른 직업에 대한 비교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5%가 다른 직업에 비해 농업이 불리하다고 답했다.

농촌생활의 미래 전망과 관련해서 5년 후 농촌생활이 ‘현재보다 향상될 것’이라는 응답은 9.2%에 불과했고, 65.1%의 농업인이 현재보다 낙후될 것으로 답했으며,

25.7%가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망해 90.8%의 농업인이 농촌생활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농업인들의 농사와 관련한 관심사항을 보면 ‘농산물 가격’(35.4%), ‘영농자금·농가부채’(22.7%), ‘농산물 수입개방’(14.6%), ‘농작물 병해충, 기상·기후조건’(8.6%), ‘추곡수매’(8.5%)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심사항은 93년 농산물 수입개방, 94년 추곡수매 등이었으나 95년 이후 줄곧 농산물 가격에 가장 큰 관심을 나타냈고, 또 농업에 종사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도 가

5년전 비교 농촌생활수준 평가에 대한 변화

(단위 : 명.%)

구 분	2000년	'99	'98	'97	'96	'95
매우 좋아졌다	14(1.4)	2.9	3.9	6.4	7.8	7.4
약간 좋아졌다	138(13.7)	28.5	22.9	34.2	45.9	52.5
항상(소계)	152(15.1)	31.4	26.8	40.6	53.7	59.9
마찬가지이다	317(31.6)	36.8	26.7	28.1	30.8	29.6
약간 못해짐	278(27.7)	22.7	30.5			
저하되었다	257(25.6)	9.1	16.0	31.1	15.5	10.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년후 농촌 생활수준 전망에 대한 변화

(단위 : 명.%)

구 분	2000년	'99	'98	'97	'96	'95
현재보다 향상	92(9.2)	23.1	31.4	20.0	22.3	29.9
현재와 마찬가지로	258(25.7)	38.0	36.9	27.5	37.3	36.9
현재보다 낙후	655(65.1)	38.9	31.7	52.5	40.3	33.2
합계	1,005(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업 종사 만족도 변화

(단위 : 명.%)

구 분	2000년	'99	'98	'97	'96	'95
매우 만족한다	14(1.4)	3.2	4.0	3.4	1.7	1.7
대체로 만족한다	111(11.2)	18.2	25.1	18.0	10.8	8.6
만족소계	125(12.6)	21.4	29.1	21.4	12.5	10.3
그저 그렇다	385(38.8)	48.3	43.4	43.1	48.4	48.3
불만이다	285(28.7)	21.1	20.7	24.7	26.0	27.3
매우 불만이다	198(19.9)	9.1	6.8	10.9	13.1	14.2
합계	993(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장 많은 농업인이 '농산물값 불안정' (20.3%)이라고 답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됐다.

지난해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불만족스럽게 느꼈던 사항으로 농업인들은 '가격 불안' '농산물 수입개방' '농가부채·영농자금' '정부의 농업인식' '수익성' '일손부족' '농가의 자금사정' '농산물 유통' '농자재

수급 및 가격' 등을 지적했다.

농업인의 이농 의사 파악을 위한 '농촌 계속 거주 여부'를 묻는 질문에 75.1%의 농업인이 '농촌에 계속 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거주 이유에 대해서는 50.2%가 '모든 생활근거가 농촌에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이외에 '나이가 많아 직업을 바꾸기 어려워' (20.5%), '농사이외에 다른 기술이 없

어서' (5.1%) 등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농업인이 긍정적인 측면보다 불가피하게 농촌에 거주한다고 답해 잠재적 이농층이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녀들에게 농업을 대물림하겠느냐'는 물음에 농업인의 61.4%가 '자녀의 뜻대로', 35.1%가 '다른 직업을 권장하겠다'고 답한 반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한 농업인은 3.5%에 그쳤다. **농약정보**